

# 1930년대 대만문단의 향토문학/대만화문 논쟁의 쟁점과 성과

崔未順\*

## <목 차>

1. 1930년대 대만문단과 문예대중화론
2. 논쟁의 발생, 경과 및 쟁점
3. 논쟁의 성과와 영향
4. 논쟁의 의의와 대만근대문학의 역사조건

## 1. 1930년대 대만문단과 문예대중화론

대만 근대문학은 1920년대 문화계몽과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당시는 일본 식민지로 편입된 지 이미 25년 이상이 지난 때로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물질, 인적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었다. 근대 식 교육을 받은 대만 도내 지식인과 일본 유학생으로 형성된 근대 지식인 계층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사적 분위기를 받아들여 문화계몽과 민족자결의식을 민중들에게 주입함으로써 현대사회로의 전환과 식민지 처지의 개선을 도모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1920년을 전후해 蔡惠如(1881-1929), 蔡式毅(1884-1951), 林呈祿(1886-1968), 王敏川(1889-1942), 黃呈聰(1886-1963), 彭華英(1893-1968) 등 일본 유학생들은 啓發會(1918), 應聲會(1919), 新民會(1920) 등 단체를 조직하고 《臺灣青年》, 《臺灣》, 《臺灣民

\* 臺灣 國立政治大學 臺灣文學研究所 副教授

報》등 신문잡지를 통해 총독전제정치 of 근간인 63법<sup>1)</sup>의 철폐와 대만인의 정치적 자치권을 주장하는 臺灣議會設置請援運動<sup>2)</sup>을 추진했다. 이들은 본토자산계급 민족주의자인 林獻堂(1881-1956)등의 지원을 받아 점차 대만 도내로 운동의 중심을 이전해 왔고 그 결과 1921년 문화계몽을 앞세운 민족단체 臺灣文化協會<sup>3)</sup>를 성립시켰다. 이 조직은 정치적 항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문화 보급운동의 형태로 민중들에게 서구 근대성을 계몽하는 동시에 식민지 대만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농민들의 자발성 저항단체인 농민조합이나 기타 정치,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며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대만 근대문단의 형성과 근대문학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기초와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문화협회의 기관지인 《臺灣民報》를 통해 당시대의 문제를 반영하는 근대문학이 창작, 유통되었다. 이렇게 문화계몽과 민족주의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한 대만 근대문학은 1920년대 어문개혁, 중국신문학의 영향과 신구문학논쟁을 거치면서 근대문학의 형식을 정립하였고, 동시에 봉건성에 대한 비판,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처지에 대한 반성을 위주로 하는 근대문학의 내용을 확립했다.<sup>4)</sup>

그런데 이러한 초기 계몽적 민족주의 성격의 근대문학을 이끈 문단의 주도 세력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대만사회의 성격과 개혁의 방안을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다 좌우 진영으로 분열하게 된다.<sup>5)</sup> 1927년 대만문화협회의 분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를 계기로 자산계급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

1) 1896년 제정된 법률63호 '대만법령을 시행하는 것에 관한 법률'로 일본헌법이나 의회의 심사나 감독을 받지 않고 대만총독의 명령으로 대만에서 법령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통독전제정치의 법률적 기초로 대만인의 기본인권이 제약을 받았다.

2) 新民會가 발기한 정치운동으로 일본제국의회에 대만자치회의의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그 기원은 63법 철폐운동이다. 1921년부터 1934년까지 15차례 제국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치적 자치를 요구했으나 실패하였다.

3) 1920년대 문화정치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민족주의문화계몽단체로 자산계급과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만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신문화를 보급하고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각종 활동을 진행했다.

4) 대만신문학운동과 계몽민족주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崔末順, <現代性與臺灣文學的發展(1920-1949)>, 國立政治大學中文系博士論文, 2004.1, 79-108쪽.

5)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26년 8월부터 1927년 2월까지 《臺灣民報》를 무대로 진행된 陳逢源(1893-1982)과 許乃昌(1907-1975)의 中國改造論爭이다.

있던 계몽운동과 계몽주의 문학보다 사회주의 이론과 시각으로 대만사회의 모순을 분석하는 사회주의 운동과 좌익문학의 경향성이 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 이론과 사조의 유입은 일차적으로 종속적인 식민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생겨난 민족, 계급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의 심화로 인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코민테른이 선전한 세계 식민지의 독립주장이 청년 지식인 계층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따라서 계급적, 민족적, 경제적 시각에서 식민 자본주의의 모순을 혁파하려는 열망이 문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고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좌익문단이 형성되었다.<sup>6)</sup> 시기적으로 보아 1929년에서 1931년까지 소위 대만의 4대 정치, 사회운동 세력<sup>7)</sup>에 대한 검거와 진압으로 저항운동이 궤멸되면서 주도세력이던 지식인의 일부가 문학영역으로 모이는 시기와 겹치는데, 예를 들어 1931년 일본과 대만 지식인이 타이베이에서 결성한 臺灣文藝作家協會와 기관지 《臺灣文學》의 발행은 대만 문단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조직적인 좌익문인단체이다. 이로써 1920년대 초기부터 점차적으로 진입된 사회주의 이념은 문단으로 확산되었고 식민경찰의 진압으로 인한 사회운동의 쇠퇴와 함께 좌익문학 진영이 강화되면서 문예대중화, 농민문학론, 동반자문학론 등 좌익문학의 각종 의제들이 토론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문인과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문예대중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무산대중들이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게 문예를 그들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의 이 문예관은 레닌(Лéнин, 1870-1924)의 <당 조직과 당 출판물>에 나오는 '예술은 인민에 속하는 것이다'에서 나온 개념으로 1928년 일본 프로문예이론가 고레히토 구라하라(藏原惟人, 1902-1991)가 제기하여 나프(NAPF)의 이론적 기초가 되면서 동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토론되었다. 문예대중화론의 제기는 무산문예운동 진전의 필연적 결과인데 계몽의 대상이었던 민중을 무산대중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을 혁명의 주도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문예를 무산대중에게 보급하여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각성하고, 나

6) 崔末順, <日據時期台韓左翼文學運動及其文學論之比較>, 《跨國的殖民記憶與戰後經驗—台灣文學的比較文學研究》, 陳建忠主編, 國立清華大學台文所, 2011.05, 155-187쪽.

7) 臺灣工友總聯盟, 臺灣民衆黨, 臺灣農民組合, 新文化協會를 일컫는다.

아가 그들 자신에 의한 문예창작과 향유를 통해 계급과 민족의 해방을 도모하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산계급문예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1931년 이후 정치사회운동에서 좌절한 좌익지식인이 문학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이 시기 출판된 《洪水報》, 《赤道報》, 《曉鐘》, 《伍人報》 등 좌익 성향 잡지에서 공히 문예대중화의 가치를 내걸었고, 앞서 본 《臺灣文學》역시 문예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심지어 1932년에 출간된 자산계급 성향의 잡지 《南音》에서도 창간호에 문예의 보편화와 대중화를 발간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이어 1934년 결성된 좌익문예조직인 臺灣文藝協會와 기관지 《先發部隊》, 《第一線》에서도 문예대중화의 선결조건인 대중의 識字率 제고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대만 문화인의 대단함과 지식인의 좌우익 공동노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1934년 臺灣文藝聯盟과 기관지 《臺灣文藝》에서도 문예대중화 방안은 좌우익 지식인 모두가 찬성한 안건이었으며, 1936년 楊逵(1905-1985)가 이 연맹에서 탈퇴하여 창간한 좌익잡지 《臺灣新文學》에서도 '예술은 대중의 소유물'이란 이념에 부합되는 문학을 추구했다.<sup>8)</sup>

이를 통해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 문예대중화론은 당위적으로 인식된 매우 보편적 주제였음을 알 수 있으며 좌우익 문단에서 공동으로 논의되었고 논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기 문예대중화론은 문예를 어떻게 대중들에게 보급하는가 하는 문제에 토론이 집중되었으며 대중을 문예의 창작주체로 설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산대중의 낮은 식자율, 대중들의 언어와 지식인의 문학어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과 대만의 복잡한 언어상황 등이 그 원인이었다. 따라서 '광대한 군중과 함께 느끼고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를 해야 한다.'<sup>9)</sup>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해 이러한 문예를 어떻게 '工農兄弟에게 확대'<sup>10)</sup>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8) 주 4)의 논문 참고, 109-181쪽.

9) 黃石輝, <怎樣不提倡鄉土文學(三)>, 《伍人報》 11, 1930.9.1.

10) 林克夫, <清算過去的誤謬-確立大衆化的根本問題>, 《臺灣文藝》 2/1, 1935.1.1., 18쪽.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930년대 향토문학/대만화문논쟁은 바로 좌익 문단의 문예대중화 방법과 방식에 대한 토론에서 비롯되었는데 문예대중화의 방식, 대중의 범위, 구체적 실천 등을 둘러싸고 약 5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앞서 제기한 바 이 논쟁은 비록 좌익문학의 문예관에서 발단했지만 근대초기 식민지 대만문단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제약과 연관되면서 좌익문단 내부뿐 아니라 기타 진영의 지식인이 대거 참여하여 근대문학 정착기 식민지 대만문학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문은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 발생한 향토문학/대만화문 논쟁에 대해 우선 그 발생원인과 계기, 과정과 쟁점, 논자들의 사고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이어 이 논쟁이 식민지 대만문단에서 가지는 의미와 이후의 성과를 정리하여 1930년대 식민지 대만문학의 역사적 조건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2. 논쟁의 발생, 경과 및 쟁점

좌익문단의 문예대중화 논의에서 촉발된 향토문학/대만화문논쟁은 1930년부터 1934년까지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정리되어 있는 관련 문장만 70여 편에 이르며<sup>11)</sup> 논쟁의 성과 혹은 여파로 볼 수 있는 이후 문단 상황까지 함께 논의하자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다. 해서 논쟁의 쟁점에 따른 시간적 순서를 따라가며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겠다. 논쟁의 의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향토문학에 대한 것으로 향토문학의 정의와 실제 창작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어떤 문학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것으로 臺灣話文과 中國白話文 사용 주장이 엇갈렸고, 세 번째는 이와 동시에 진행된 대만화문

11) 中島利郎編, 《1930年代臺灣鄉土文學論戰資料彙編》(高雄: 春暉出版社, 2003)

의 건설에 관한 논쟁이었다. 정리하면 향토문학논쟁은 문학내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두 논쟁은 문학 언어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겠다.

1930년부터 1932년 사이에 일어난 1차 논쟁은 《伍人報》에 실린 黃石輝(1901-1945)의 <怎樣不提倡鄉土文學>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12)</sup> 이 문장으로 촉발된 논쟁의 주요내용은 黃石輝가 제기한 향토문학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주요 참여자는 찬성과인 黃石輝와 그 반대편의 廖毓文(1912-1980), 林克夫(1907-?), 朱點人(1903-1951) 등이다. 일실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臺灣新聞》상에서도 李春霖과 반대파 간에 향토문학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하고, 1932년 《南音》이 창간되면서 《臺灣文學》의 賴明弘(1915-1958)과 黃石輝, 黃春成(1907-?), 莊垂勝(1897-1962) 사이에도 논쟁이 일어나 《臺灣文學》과 《南音》 간의 진영대립으로 격화되기도 했다. 이어 郭秋生(1904-1980)이 향토문학은 대만화문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sup>13)</sup>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찬반의견과 더불어 찬성과 내부에서도 표기와 추진방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쟁이 발생했다.

1차 논쟁의 도화선이 된 黃石輝의 문장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만의 하늘 아래 대만의 땅을 밟고 사는 대만인이라면 보고 듣는 것이 모두 대만의 소식이고 입을 통해 나오는 것 역시 대만말이므로 대만의 문학을 해야 한다; 대만의 문학은 대만말을 사용하여 창작한 시, 소설, 가곡을 말하는 것으로 대만말로 대만의 사물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sup>14)</sup> '광대한 군중을 감동시키는 작품을 쓰려면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을 대상으로 문예를 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을 대상으로 문예를 하려면 향토문학을 제창해야 하고 향토문학을 건설하려면 실제상황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sup>15)</sup> 즉 黃石輝의 향토문학 주장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내용적으로는 대만의 사물을 묘사

12) 克夫的 <鄉土文學的檢討-讀黃石輝君的高論>(《台灣新民報》 377, 1931.8.15.)에 의하면 당시 《伍人報》에 찬반의견이 실리면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伍人報》는 당국에 의해 검열되고 금지되어 이 문제의 토론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13) <建設台灣話文一提案>, 《臺灣新民報》 379-380號, 1931.8-9.

14) 黃石輝, <怎樣不提倡鄉土文學(一)>, 《伍人報》 9, 1930.8.16.

15) 黃石輝, <怎樣不提倡鄉土文學(三)>, 《伍人報》 11, 1930.9.1.

하고, 형식적으로는 대만화문으로 창작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문장과 더불어 일 년 후 다시 한 번 ‘향토문학을 제창하는 이유는 각 지방마다 그 곳의 말이 있고, 그 말로 쓴 문학만이 정확하게 사물을 묘사하고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토문학의 기치를 내걸고 대만화문의 건설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대파 문인들의 질의가 시작되었다.

廖毓文은 ‘향토문학이란 개념은 19세기 말엽 독일 문단에서 온 것으로 시대성과 계급성이 없어 지금은 이미 사라진 문학’<sup>17)</sup>이라고 했고 이에 동조하는 朱點人是 독일작가 로세게스(Roseeggess)의 <나무꾼의 집>을 향토문학의 대표작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향토문학을 제창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으며, 林克夫는 향토문학이란 용어는 세계 어느 지역에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黃石輝가 제기한 개념이 이런 정도의 향토문학이라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黃石輝는 일본어와 문언문으로 대만의 생활상황을 제대로 충분히 묘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향토문학을 대만화문을 쓴 문학으로 재정의 했고<sup>18)</sup> 논쟁은 곧 대만화문의 채용여부를 둘러싼 문학어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賴明弘은 ‘대만의 프로젝트급을 위해 무산대중을 목표로 문예를 해야 하며’, ‘전 세계 프로젝트급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므로’ 대동단결의 입장에서 漳州, 廈門 이외에 통용가치가 없는 향토문학을 반대하고 ‘그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중국과도 연계가 가능한 중국백화문의 주장을 제창’<sup>19)</sup>했고 같은 입장에서 廖毓文, 林克夫, 朱點人 등은 ‘문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문학만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현실의 요구와 역사적인 필연성을 가진 불세비키의 프로문학’<sup>20)</sup>을 건설해야 하므로 대만화문을 문학어로 채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이 중국백화문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통치가 날로 공고해지면서

16) 黃石輝, <再談鄉土文學>, 《台灣新聞》, 1931.7.24.

17) 毓文, <給黃石輝先生-鄉土文學的吟味(一)>, 《昭和新聞》 140, 1931.8.1.

18) 黃石輝의 주장을 莊垂勝은 ‘대만화문을 완성하여 대만문학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요약했다. 負人, <臺灣話文雜駁(一)>, 《南音》 1/1, 1932.1.1.

19) 賴明弘, <做個鄉土人的感想>, 《臺灣新聞》 1931.12.24.에 게재되었으나 일실됨. 負人, <臺灣話文雜駁(四)>(<南音》 1/4, 1932.2.22.에서 재인용.

20) 毓文, <給黃石輝先生-鄉土文學的吟味(二)>, 《昭和新聞》 141, 1931.8.8.

한문서당이 소실되어 가고 있어 黃石輝가 제기한<sup>21)</sup> 臺灣話文研究會의 조직이나 기타 간행물의 발간이 불가능하다는 점, 중국백화문이 이미 통용되고 있다는 점, 대만의 언어가 복잡하여 漳州와 泉州에서만 쓰는 말을 채택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대만화문을 쓸 경우 대만과 중국이 멀어질 수 있다는 점, 대만어가 아직은 유치하고 미성숙하여 문학의 이기으로써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를 정리하면, 언어의 성숙도와 표준화의 가능성 여부를 들어 대만화문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전자는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개선을 위한 시도나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고, 후자는 백화문과 비교하여 특정지역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비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黃石輝는 대만 도내에서 쓰이는 福佬話<sup>22)</sup>가 실제적으로 대만의 공통어이므로 이를 채용한 문학으로 민중들에게 문예를 보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실 어느 쪽이든 문예 대중화의 방법적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문화협회 분열 후 좌익의 신문협 간부였던 黃石輝나 '젊은 마르크스주의자, 투쟁하는 이론가'로 불리며 좌익문학잡지인 《臺灣文學》에서 활동했던 賴明弘, 타이베이 지역의 좌익경향 작가들인 廖毓文, 林克夫, 朱點人 등이 모두 좌익문인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첫 단계의 논쟁은 좌익문단 내부의 다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화문이 이미 통용되고 있거나 대만화문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 차이는 대만의 당시 현실과 언어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사상의 대만전파 이후 1930년대에 이르러 민족과 계급, 대만 본토(鄉土)를 둘러싸고 좌익문인들 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주도권 싸움이 논쟁의 배후 원인이라고 하겠다. 즉 黃石輝와 郭秋生으로 대표되는 좌익본토주의자는 무산계급의 입장에서 무산계급의 본토문화를 건립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대중은 바로 대만의 인민을 가리키며 대만인민을 위한 프로문학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21) 黃石輝, <鄉土文學的檢討-再答毓文先生>, 주 11), 105-111쪽에서 재인용.

22) 福佬는 福建人을 말한다. 學佬, 鶴佬, 河老, 河洛라고도 한다. 따라서 福佬話는 복건인들의 말을 일컫는다.



문학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에 비해 좌익국제주의의 입장을 견지했던 賴明弘, 廖毓文, 林克夫, 朱點人 등은 대만의 프로문학을 건립하여 장래 광대한 중국의 무산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문학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들의 입장과 발언을 한족민족주의자와 대만본토주의자로 나누거나<sup>23)</sup> 혹은 중국과 대만을 대립적으로 인식했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sup>24)</sup> 당시의 좌익문단이라는 테두리에서 볼 때 그다지 심각한 대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국백화문을 주장한 朱點人은 만약 대만말이 통일될 수 있다면 대만화문의 사용을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고<sup>25)</sup> 대만인의 문맹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만어로 시가나 소설을 창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sup>26)</sup> 대만화문 주장자인 黃石輝도 중국백화문과 대만화문이 완전히 절연된 것이 아니며 상호 연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sup>27)</sup> 대만화문 사용을 둘러싼 이 논쟁을 좌익문단의 현실인식과 미래전망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찬성파는 대다수 대만의 무산대중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만화문으로 창작함으로써 우선 프로문학을 발전시켜 민중에게 보급하자는 주장이고, 반대파는 지식인 계층에 이미 통용되고 있는 중국백화문으로 창작하여 대만 민중뿐 아니라 장래 중국의 무산대중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또한 찬성파는 혁명의 주체를 무산대중에 두고 그들이 창작하고 향유할 문예는 그들이 사용하는 대만화문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반대파는 여전히 지식인이 주체가 되어 민중을 계도하는 문학이 현 단계의 대만실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이며 이는 1930년대 대만의 무산계급운동의 진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28)</sup>

23) 趙勳達, <文藝大衆化的三線糾葛-1930年代臺灣左右翼知識份子與新傳統主義者的文化思維及其角力>, 國立成功大學臺灣文學研究所博士論文, 2009.6.

24) 대표적인 것으로는 游勝冠, <臺灣文學本土論的興起>(臺北: 前衛出版社, 1996)가 있다.

25) 點人, <檢討「再談鄉土文學」(一)>, <臺灣新聞>, 1931.8.20.

26) 毓文, <我的希望>, <臺灣新聞>, 1932.12.17.

27) 黃石輝, <我的幾句答辯(中)>, <昭和新聞> 143, 1931.8.22.

28) 1930년대 초 사회운동의 궤멸로 관련 잡지와 문헌이 소실된 것이 많아 그들의 무산계급운동에 대한 생각차이는 정확히 찾을 수 없지만 대만화문논쟁 관련 문장 등 문학잡지에서 드러난 것을 기초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黃石輝의 향토문학 제창 이후 시작된 논쟁은 郭秋生의 등장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만화문건설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언어는 집단생활의 반영이며 민족정신의 표현<sup>29)</sup>이라는 전제 하에 중국역사에서의 언문괴리 현상과 중화민국 건립, 胡適(1891-1962)의 문학혁명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대만인의 언어적 환경이 매우 특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sup>30)</sup> '식민지의 원주민에게 본국의 문화, 다시 말해 본국의 언어, 문자, 생활양식을 주입하여 식민지민의 고유한 정신, 민족성을 잃게 하는 것은 식민지의 원주민을 만 백년 제국에 순종하여 절대봉공하게 함이다.'<sup>31)</sup> 그의 이런 의견은 일본 동화정책을 비판하고 대만의 고유문화가 위기에 처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국어(일어)교육의 진행과 전통 서당교육의 몰락이라는 식민지 현실에서 대다수 민중들이 문맹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문일치의 대만화문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식민정부에 기대어서는 민중의 식자율을 높일 수 없고 전통서당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으며 중국백화문으로 대만어의 표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이 대만화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대만화문이란 바로 대만어의 문자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언문일치가 이루어지면 민중들이 바로 생활과 결합해 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표기기호에 대해서는 한자의 영향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2)</sup>

郭秋生이 제기한 대만화문의 표기와 관련한 논의는 1932년 창간된 잡지 《南音》으로 옮겨와 진행되었는데, 대만본토의 문학분위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 《南音》은 '臺灣話文討論欄', '臺灣話文雜駁', '臺灣話文新字問題' 란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동시에 民間文學의 채집과 재정리를 추진했다. 《南音》은 우익 자산계급 지식인이 주도한 잡지로 이들 우익 성향의 자산계급 지

29) 郭秋生, <建設臺灣話文一提案(五)>, 《臺灣新聞》 1931.7.11.

30) 郭秋生, <建設臺灣話文一提案(二十)>, 《臺灣新聞》 1931.7.26.

31) 앞주와 동일.

32) 그는 蔡培火(1889-1983)의 教會로마자나 일어 표기가 효과가 없고, 그 이전 連雅堂(1878-1936)이 고증한 漢字臺灣語 역시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식민들은 식민지 상황과 현대사회로의 변화가 가져온 대만 고유문화의 유실을 막고 민간문학의 정리를 통해 이를 보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대만화문건설에 대한 관심과 《南音》이라는 무대의 제공은 원래 좌익 문단에서 논의되던 문학어의 논쟁을 좌우익 문학 진영 간의 논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負人(莊垂勝)이 연재한 ‘臺灣話文雜駁’ 시리즈 문장을 보면 그와 曾演奏, 劉魯, 廖毓文, 林克夫, 朱點人, 賴明弘 등과의 논쟁상황을 볼 수 있다. 그는 대만말이 중국어의 방언이지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즉 중국백화문의 대만 적용은 일본어나 문언문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黃石輝와 郭秋生の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이 견해는 일어, 문언문, 중국백화문, 대만화문 등 당시 대만의 언어와 문자표기 상황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대만민중의 언문일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시대정합성을 가진 논의라고 하겠다. 그는 廖毓文, 林克夫, 朱點人, 賴明弘 등의 중국백화문 주장에 대해서 동상이몽의 사형제라고 지칭하면서 ‘漢字의 뜻을 취해 대만말(臺灣話)을 표기하면 바로 대만문(臺灣文)이 되므로 이렇게 臺灣話文이 성립되면 대만화문의 문학을 건설하게 되고 문학의 대만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지금엔 대만화문을 주로 하고 중국화문을 從으로 해야 하는 단계’<sup>33)</sup>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賴明弘은 프로젝트급의 대등단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만화문을 반대했으며<sup>34)</sup> 이에 대해 黃石輝는 ‘대만화문의 반대는 객관적인 정세를 무시하는 것으로 무산계급의 대단결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사람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이것이 무산계급의 요구’<sup>35)</sup>라고 반박했다. 黃石輝의 이러한 논점은 문예대중화의 실천을 위해서 이론보다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무산대중이 온전한 실천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周定山은 중국백화문 주장자들을 ‘민족 열근성에 찌든 프로문학의 괴물’<sup>36)</sup>이라고 비난하면서 대

33) 負人, <臺灣話文雜駁(三)>, 《南音》 1/3, 1932.2.1.

34) 賴明弘, <做個鄉土人的感想>, 《臺灣新聞》 1931.12.24.

35) 黃石輝, <臺灣話文討論欄·答負人>, 《南音》 1/8, 1932.6.13.

중을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 비판했다.

다음으로 1933년에서 34년 사이에 있었던 2차 논쟁은 《臺灣新民報》와 《福爾摩莎》, 《新高新報》를 무대로 진행되었는데 발단은 역시 黃石輝가 제기한 향토문학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었다. 1933년 신민보에 실린 黃石輝의 <所謂「運動狂」의喊聲 給春榮克夫二先生(上)><sup>37)</sup>에서 그는 향토문학이란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賴明弘은 여전히 향토문학의 개념과 명칭을 유럽의 전원문학과 동일한 차원이라고 비판하면서 계급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도시문학과 향토문학이 모두 자산계급문학으로 대중을 외면한 반동문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sup>38)</sup> 또한 黃石輝와 郭秋生이 제기한 대만화문의 주장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실체가 없는 문학론이라고 비판했다.<sup>39)</sup> 1차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제주의에 입각해 향토문학과 대만화문 주장을 계급보다는 민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臺灣民衆黨<sup>40)</sup>의 외곽단체인 赤崁勞働青年會와 신문협에서 활동했던 樞馬(趙啓明)은 臺灣地方自治聯盟<sup>41)</sup>의 우익인사들이 제기한 향토문학 내용을 비판했는데 그들이 ‘日月潭, 阿里山 같은 대만의 향토미를 드러내는 것을 향토문학을 건설하는 것’<sup>42)</sup>이라고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貴族文學’이며 문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排外主義文學’으로 규정했다. 대만문단에서 쟁점이 된 향토문학의 내용문제는 일본의 대만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福爾摩莎》 잡지

36) 一吼, <拍賣民衆>, 《南音》 1/6, 1932.4.2.

37) 《臺灣新民報》 967, 1933.10.29.

38) 賴明弘, <對鄉土文學臺灣話文絕對反對(二)>, 《臺灣新民報》 956, 1933.10.18.

39) 賴明弘, <絕對反對建設臺灣話文推翻一切邪說(二)>, 《新高新報》 411, 1934.2.9.

40) 대만민중당은 1927년 7월 10일 타이중에서 성립된 대만인에 의한 첫 정당이다. 초기의 주요 인물로는 李應章(1897-1954), 林獻堂(1881-1956), 蔣渭水(1890-1931), 蔡培火 등이 있다.

41) 1930년 대만의 우익 신사계급이 설립한 정치단체로 대만인의 공민자치권 보장을 주장했으며 지방자치 단체장의 민선과 의결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崔未順, <殖民地自治論與葉榮鐘的朝鮮行>, 「第17屆中國韓國學國際學術研討會」(山東大學韓國學院主辦), 2016.10.13.-16 참고.

42) 樞馬, <幾句補足(上)>, 《臺灣新民報》 934, 1933.9.26.

에서도 등장하는데 먼저 淸葉은 향토문학을 전원문학, 농민문학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정감을 표현하는 문학이어야 하며 대만을 자기의 향토라고 여기는 데서 출발한 모든 문학을 대만문학이라고 주장했다.'<sup>43)</sup> 대만문단의 동향에 관심을 가진 유학생의 시각을 보여주는데 그에 따르면 광범위한 대만문학에 도시문학, 전원문학, 농민문학, 좌익문학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劉捷(1911-?)는 대만에서 향토문학을 두고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어로 대만의 지방색채를 쓴 작품이 《臺灣新民報》에 실렸다고 하면서 언어문제보다는 대만의 특색을 드러내는 것이면 바로 대만문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sup>44)</sup> 그러나 그가 예로 든 《命運難違》나 《女性的悲歌》는 비록 당시 대만인의 생활을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무산대중의 시각이나 처지와는 거리가 있어 프로문학의 관점에서 토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좌익 지식인인 吳坤煌(1909-1989)은 <論台灣的鄉土文學><sup>45)</sup>에서 앞 두 사람의 의견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고, 핵심에서 벗겨갔다고 지적하면서 향토문학이 단순히 '대만을 무대로 대만생활을 표현하는 문학작품'이어서는 안 되며 '지방색채와 더불어 민족동향을 묘사하는' 프로문학적 관점을 가진 것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구라하라, 레닌, 마르크스의 이론을 인용하여 계급적 시각에서 향토문학을 언급하면서 향토문학 논의를 다시 좌익 문학 내부로 수렴하고 있다. 《福爾摩莎》에 실린 이 세 편의 일본어 문장은 대만문단에서 언어문제가 쟁점이 된 것과는 달리 향토문학의 내용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작품의 성패와 언어를 따로 분리시켜 이해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대만화문과 관련된 논쟁은 貂山子(何春喜)가 <對建設台灣鄉土文學型式的芻議>를 발표한 후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sup>46)</sup> 이 문장에서 貂山子は 대만화문을

43) 淸葉, <具有獨特性的臺灣文學之建設-我的鄉土文學觀>, 吳枚芳 譯文, 《文學臺灣》38, 2001.4, 47-51쪽.

44) 樞馬, <幾句補足(下)>, 《臺灣新民報》 935, 1933.9.27.

45) 《フォルモサ》(福爾摩莎) 2, 1933.12.

46) 이 문장은 일실되었지만 내용은 越峰, <對「建設臺灣鄉土文學的形式的芻議」의異議>, 《臺灣新民報》 914, 1933.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조하기보다는 직접 중국의 註音字母을 쓰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좌익지식인 林越峰(1909-?)은 註音은 배우기가 어렵고, 대만에 원주민 어 이외에도 漳, 泉, 奧의 언어가 각각 다르며 奧語(廣東語)만 해도 四縣, 饒平, 海陸豐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음을 채용한다면 각 지역마다 다른 표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표음문자는 뜻이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고 그 지역에서만 통하기 때문에 중국백화문을 채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林越峰은 중국백화문은 字義를 가지기 때문에 漳, 泉, 奧 사람들이 쓰고 읽을 수 있고, 대만인이 쓴 중국백화문 작품은 대만에서 쓰고 있는 한자표현과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대만특색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다.<sup>47)</sup> 즉 중국백화문을 근간으로 하고 대만의 특수색채를 더하기 위해 방언을 넣는 방식으로 창작하면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黃石輝가 말한 ‘대만화문도 중국에서 통할 수 있다’<sup>48)</sup>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비록 각자의 언어주장은 다르지만 대만화문과 중국백화문이 통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貂山子와 林越峰 사이에는 이후에도 여러 번 중국의 주음자모를 채용하여 대만어를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설전이 오갔는데, 요지는 중국백화문은 대만의 대중과 격리된 언어이기 때문에 국음자모로 대만말을 표기하자는 의견과 대만의 표준어가 아직 건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기간에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중국백화문을 채용하여 도내의 언어를 통일하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이후에도 賴明弘, 樞馬, 邱春榮 등의 반론이 있었는데 樞馬는 새로운 표기를 창조하느니보다 현행의 중국백화문을 쓰자고 하면서 최근 白話가 점차 유행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본래 뗄 수 없는 문화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sup>49)</sup> 逸生(吳松谷)은 일본당국의 교육에 대한 압제를 생각하면 대만화문의 건설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생활, 풍속, 습관, 언어 등에서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국백화문으로 창작하면 중국과 대만인들이 모두 알아 볼 수 있어

47) 越峰, <對「建設臺灣鄉土文學的形式的芻議」的異議>, 《臺灣新民報》 914, 1933.9.5.

48) 黃石輝, <我的幾句答辯(上)>, 《昭和新聞》 142, 1931.8.15.

49) 樞馬, <幾句補足(下)>, 《臺灣新民報》 935, 1933.9.27.

대만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보다 이상적이고 대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 방언 등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잘 활용하면 대만색채를 잘 드러낼 수 있다<sup>50)</sup>고 했다. 林克夫 역시 이에 부응하여 '중국백화문을 주로 하고 대만화문을 從으로 하며, 만약 글자가 없을 경우 중국백화로 대체하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동시에 臺灣人, 廣東人, 福州人, 기타 중국의 族群<sup>51)</sup>이 모두 알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대만향토색채를 가진 언어를 병용할 수도 있다<sup>52)</sup>고 했다. 이들은 한문이 점차 쇠퇴하고 일본어가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대만화문의 창조보다는 조국과 통용되는 중국백화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만의 사물과 상황을 드러내는데 있어 대만말을 겸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 대만화문 주장자의 문제의식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이러한 절충적 방식은 당시 대만의 언어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일제시기 소설이 기본적으로 백화문의 서술구조에 대만말 단어나 대만식 표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씌어졌다.<sup>54)</sup>

이에 대만화문 주장자들은 논쟁보다는 대만화문의 건설에 나섰는데 郭秋生은 각지의 구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한 '臺灣話文嘗試集'을 신민보에 연재하였고, 대만화문을 지지하던 李獻璋도 '臺灣謎語彙錄'을 연재하면서 실천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런 기초에서 黃石輝는 다시 한 번 대만화문으로 대만사회의 현상을 표현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대만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향토로 규정하고 향토문학, 대만화문을 표방한 것'이라고 하면서 '대만의 언어가 혼잡하기 때문에 한자(形과 義가 있는 문자)를 사용한 대만화문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럴 경우 중국백화문과도 통하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알아 볼 수 있다<sup>55)</sup>는 점을 확인했다. 동시에 黃石輝는 賴明弘, 林克夫, 邱春榮 등의 생각에

50) 逸生, <對鄉土文學來說幾句>, 《臺灣新報》 935, 1930.9.27.

51) 에스니시티(Ethnic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각기 다른 언어와 생활습관을 가진 대만의 다문화 공동체 사회에서 각 공동체를 일컫는 데 쓰인다.

52) 克夫, <對臺灣鄉土文學的認識(三)>, 《臺灣新報》 941, 1933.10.3.

53) 賴明弘과 邱春榮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54) 廖毓文도 일본 식민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대만화문 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55) 黃石輝, <所謂「運動狂」的喊聲-給春榮克夫二先生(中)>, 《臺灣新報》 968, 1933.10. 30.

반론을 제기하면서 당시 일간 《臺灣日日新報》, 《臺灣新聞》, 《臺南新報》와 주간 《新高新報》, 《昭和新報》의 문언문 세력도 무시하기 어렵고 서당에서도 여전히 문언문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대만화문만이 대만의 대중과 유리되지 않는 언어로 이를 통해서야 진정한 대만의 프로문학을 창조할 수 있다는 주장<sup>56)</sup>을 이어갔다. 郭秋生 역시 문맹이 대부분인 무산대중에게 통하는 대만화문만이 문예대중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면서 한자대만화문을 주체로 하여 문언문, 중국국어, 일본국어, 외국어 등 각종 언어의 정화를 흡수하고 민간문학을 골간으로 하여 대만말의 문학을 추진해야 문학의 臺灣話文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sup>57)</sup> 《臺灣新民報》의 논쟁 이후 《新高新報》에서 廖毓文, 賴明弘 등 중국백화문 주장자들이 프로문학의 국제주의 입장에서 대만화문을 반대하는 문장을 발표하고 중국과의 문화 관련성, 한자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화문을 대만의 문학어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학어 채택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한해 쟁점과 참여 논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만화문 지지자	黃石輝, 郭秋生, 黃春成, 鄭坤五, 莊垂勝, 周定山, 李獻璋, 黃純青, 賴和	貂山子, 黃石輝, 郭秋生, 李獻璋
중국백화문 지지자	廖毓文, 朱點人, 林克夫, 邱春榮, 賴明弘	林越峰, 賴明弘, 趙樞馬, 吳逸生, 林克夫, 邱春榮, 廖毓文
시간	1930-1932	1933-1934
미디어	伍人報, 臺灣文學, 南音, 臺灣新聞, 昭和新報	臺灣新民報, 新高新報

56) 黃石輝, <解剖明弘君的愚論(五)>, 《臺灣新民報》 978, 1933.11.9.

57) 郭秋生, <還在絕對的主張建設臺灣話文(一)>, 《臺灣新民報》 980, 1933.11.11.



### 3. 논쟁의 성과와 영향

앞서 본 대로 193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대만문단의 향토문학/대만화문 논쟁은 문예 대중화의 방식과 대상을 모색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논쟁에 참여한 논자들이 각기 다른 입장과 시각을 끝까지 견지하여 통일된 결론과 유효한 실천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1930년대 식민지 환경에서 근대문학의 성격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지식인의 사고가 잘 드러나고 있다. 논쟁의 성과와 영향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대만화문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다. 대만화문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대만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화문과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나는 郭秋生이 주장하는 ‘取音不取義’(뜻보다는 음을 취한다) 원칙이다. 말하자면 실제로 대만민중들이 쓰는 음을 그래도 표기하자는 것인데 표기방식으로 이미 있는 舊字는 그대로 쓰되 없다면 新字를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郭秋生은 당시 대만에서 인기를 끌던 歌仔冊<sup>58)</sup>과 대만어 유행가<sup>59)</sup> 등에서 발상하여 대만사람들이 내는 소리의 원음을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가요, 민가 혹은 속담이나 수수께끼 등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하여 舊字를 찾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표기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0)</sup> 그러나 이에 대해 黃石輝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음보다는 뜻을 고려한 ‘取義不取音’(음보다 뜻을 취한다) 원칙을 내세웠다. 음을 우선으로 하여 新字를 만들면 생소한 글자가 많아져 그 자체로도 복잡하게 되고 나아가 중국백화문과의 소통도 어려워져 번잡함만 더할 뿐

58) 歌仔冊은 대만의 민간희곡 歌仔戲의 唱本으로 중요한 閩南語 통속문학이며 1930년대 대만에서 상당히 유행했다.

59) 가령 <桃花泣血記>같은 유행가는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발매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60) <南音> 상의 <新字問題>나 <臺灣新民報> 상의 <建設臺灣話文一提案> 시리즈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라는 것이다.<sup>61)</sup> 이런 원칙하에 그는 常識課本(상식 교본), 尺牘課本(편지쓰기 교본), 做文課本(글짓기 교본) 등 각종 교과서를 만들어 서당이나 초학의 아동들에게 보급하고, 辭典이나 字典, 용어집 등을 편찬하며 동지들을 규합해 鄉土文學硏究會 등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표준글자를 정하고 동시에 시, 소설, 산문, 논문 등 모범으로 삼을 만한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대만화문을 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에 대해 郭秋生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문학에서 舊字를 찾는 이외 기존 문학에서 글자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南音》의 ‘臺灣話文嘗試欄’(동요, 민가, 수수께끼 등의 채집), ‘X光線室’, ‘新名詞’, ‘糞屑船’ 난을 통해 실천했으며 《南音》이 정간된 후에는 신민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갔다.

한편 黃純靑(1875-1956)은 <臺灣話文改造論>에서 廈門음을 표준으로 하여 언문일치를 이루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채용하여 되도록 간편한 방식으로 대만말을 표기하자는 것인데, 이미 알고 있는 글자를 이용하는 ‘取義做根本, 取音做枝葉’(뜻을 위주로 하고 음은 보조로 한다)의 ‘屈話就文’(음을 글자에 맞춤)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漳泉人에게 적합할 뿐 아니라 新字가 많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讀音의 통일은 廈門음을 표준으로 하고 모를 경우 音標를 옆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대만말 표기를 개조하여 정착시키자는 주장이다. 그 역시 臺灣話文硏究會를 조직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책을 편찬하며 강습회, 언론홍보 등을 동원해 서당과 公學校<sup>62)</sup>에 대만어과목을 개설할 것을 청원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대만어의 개조를 통해 대만과 福建, 廣東지역 및 남양의 화교 등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이로써 일본이 제기한 남진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sup>63)</sup> 그러나 이런 주장은 郭秋生과 黃石輝에 의해 대만어를 개조하려면 반드시 대만의 언어를 표준으

61) 《臺灣新聞》 상에 연재한 <再談鄉土文學> 시리즈 문장(1931.7.24.부터 8회 연재)에서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난다.

62) 식민지 시기 대만에 개설된 아동교육기관으로 1898년부터 1941년까지 지속되었다. 입학 대상은 대만인 자제들이었고 이와 분리하여 일본인 아동들은 小學校에 입학했다.

63) 《臺灣新聞》에 연재한 <臺灣話改造論> 시리즈 문장(1931.10.15.부터 14회 연재)을 통해 알 수 있다.

로 해야 당위성과 현실성이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대만문학의 주요작가인 賴和(1894-1943)도 新字의 창조는 기존의 문자에서 음과 뜻이 다 통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하는 것으로, 뜻이 통하고 음이 통하지 않는 글자의 경우에는 옆에 음을 표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sup>64)</sup> 《南音》의 주도적 인물인 莊垂勝 역시 대만에서 통용되는 대만화문과 중국백화를 함께 참고하여 ‘以台灣話文爲主, 中國話文爲從’(대만화문을 위주로 하고 중국화문을 보조로 한다)기준을 내놓았고<sup>65)</sup>, 李獻璋은 문언문이나 중국백화, 혹은 連雅堂 등이 수집한 대만가요 등 민간문학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글자를 가져오자는 의견을 내고<sup>66)</sup> 《南音》잡지에 ‘讀者通信欄’을 만들어 민중과의 소통 실험을 진행했다.

李獻璋의 이러한 실험은 기존의 글자를 채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南音》에서 채집한 가요를 정리하여 이후 《臺灣民間文學集》을 펴내게 되었으며 이후의 문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문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기초가 되었다. 1933년 9월 《南音》에 ‘臺灣謎語纂錄’을 연재하면서 李獻璋은 민간문예의 정리에 대해 선조들의 유산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집과 정리를 통해 풍속과 사회상태, 민족의 소리를 조사, 연구하여 문화사의 기록을 남기고, 그중 문학성이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문인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채집한 수수께끼를 動物, 植物, 自然, 構造, 雜 등 다섯 종류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민간문학집에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대만화문논쟁으로 촉발된 대만화문 건설주장은 민간문학의 채집과 정리를 통해 대만어의 문자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만민간문학의 정리는 淸朝시기 정치교화의 목적으로 편찬된 지방 역사인 方志의 한 내용으로 시작되었고, 일제시기 초에는 총독부가 통치의 필요성에 의해 민간풍속과 구관습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면서 민간문학이란 개념이 이식되었고 이후 신구지식인을 막론하고 전통과 민족성의 보존, 학술과 문예에서의 참

64) 賴和, <臺灣話文의新字問題(一)-給郭秋生>, 《南音》 1/3, 1932.1.10.

65) 《南音》에 연재한 <臺灣話文雜駁> 시리즈 문장(1932년 1월부터 5월까지 연재) 참고.

66) <臺灣話文討論欄-新字文字>, 《南音》 1/5, 1932.3.10.

고 가능성 등의 목적아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sup>67)</sup> 1936년에 나온 《臺灣民間文學集》은 이러한 실천의 연장선에서 李獻璋, 賴和, 黃石輝 등 화문파의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중국백화문논자인 林越峰, 朱點人, 廖毓文 등이 채집한 민간이야기도 수록하고 있어 1930년대 향토문학/대만화문논쟁의 직접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간문학집의 출간을 앞두고 《臺灣新文學》은 ‘가와 전설은 모두 국민생활의 반영이며 정감의 기록, 지혜의 누적이고 동시에 국민행동의 무형의 지배자이다. 따라서 대만민간문학집은 전체 대만인의 문예적 상상력의 총합이며 先民들의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sup>68)</sup>라는 소개를 했고 민간문학집의 서문에서 李獻璋은 ‘福老人이 閩南지역에서 옮겨 왔으므로 문화와 역사에서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야기도 많으므로 福建 泉州의 이야기집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다.’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만화문논쟁을 거치면서 중국과는 다른 대만 특유의 언어와 문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930년대 대만문학 창작의 실제 언어상황을 통해 논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논쟁에서 제기되고 토론된 쌍방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창작으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제시기 대만의 문학어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백화문, 일본어, 일본식 한문, 전통 문언문, 대만화문 등이 있다. 1920년대 대만민보 계열 신문잡지를 통해 형성된 대만근대문학은 대부분 중국백화문으로 씌어졌는데 이들 신문잡지의 발행주체가 문화 계몽운동을 전개한 근대 지식인이고 五四 중국 신문학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어 문학은 초기 일본 유학생에 의해 창작되었고 1930년대 초 대만 내 일본무산청년들이 주도한 《臺灣文學》과 일본의 대만유학생이 발간한 《福爾摩莎》 등 문학잡지에서 대량 등장했다. 또한 식민당국의 검

67) 이에 대해서는 施懿琳, <民歌採集史上的一頁補白-蕭永東在《三六九小報》的民歌仿作及其價值>, 《第三屆通俗文學與雅正文學全國學術研討會論文集》(台北: 新文豐, 2002); 王美惠, <1930年代台灣新文學作家的民間文學理念與實踐-以<台灣民間文學集>爲考察對象> (國立成功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 2008.1) 참고.

68) 《臺灣新文學》 1/10, 1936.12 광고.

열과 언어규제로 인해 1930년대 중반기 이후 대만 도내에서 발간된 문학잡지 《第一線》, 《臺灣文藝》, 《臺灣新文學》에서도 일본어 비중이 늘어났으며 1940년대 전쟁시기의 대만문단은 漢文이 금지되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sup>69)</sup> 일본어로만 창작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논쟁이 일어났던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는 사회주의 사조의 영향과 좌익문단의 형성 등 근대문학의 주체와 독자층에 대한 사고가 심화되었고 이런 가운데 일본, 중국과 구별되는 대만인의식이 문학논의에도 등장하여 논쟁으로까지 격화되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문학어로 대만화문을 채용할지 여부였는데 논쟁이 지속된 시기와 그 이후의 창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陳淑容의 연구에 의하면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시종일관 대만화문을 주장했던 黃石輝는 <以其自殺, 不如殺敵>(1931)이라는 대만화문소설을 창작하여<sup>70)</sup> 자신의 주장을 실천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소설은 관청과 일본의 제당회사에 의해 임야를 강탈당한 가족이 저항을 하지만 대규모의 진압으로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동지를 밀고한 이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된 주인공이 출옥하여 일본인이 경영하는 철공장에서 일하다 과도한 착취에 견디지 못해 동맹파업을 하다 쫓겨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 중의 대만화문 표기는 자신이 주장한 대로 대부분 기존 문자를 채용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새로운 글자를 소수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대량의 대만 속어와 속담을 운용하여 대만의 풍토와 특성을 잘 살렸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 소설은 賴和에 의해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대만화문으로 된 語句를 중국백화문의 어투로 바꾼 것이었다. 비록 간행되지는 못했지만 대만신민보에 실을 것을 전제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문단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수정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賴和의 이러한 수

69) 예를 들어 1930년대 중반 이후 《風月報》계열 잡지로 불리는《風月》, 《風月報》, 《南方》 등은 문언문과 중국백화문을 사용했는데, 일본의 중국침략과 이어지는 남진정책에서 日華提携가 중시되었으며 南洋의 화교와의 연락에도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70) 이 소설의 작자와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陳淑容, <1930年代鄉土文學·臺灣話文論爭及其餘波>(國立臺南師範學院鄉土文化研究所碩士論文, 2001.6), 137쪽 참고.

정은 자신의 소설 창작에서 얻은 경험과도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1930년대 중반 이전의 소설은 중국백화문으로 썼지만 1934년 <善訟人的故事>부터 백화문을 서술의 근간으로 하되 대화에서 대만화문을 첨가하여 인물의 특색을 살려내는 방식을 채택했고, 1935년 나온 그의 마지막 소설 <一個同志的批信>에서는 거의 대만화문으로 표현하였으며 생전에 발표되지 못한 <富戶人的歷史>는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전히 대만화문을 채용한 소설이다. 일제시기 가장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는 賴和의 이러한 창작경험을 통해 중국백화문과 대만화문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一個同志的批信>은 발표 후 읽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黃石輝의 소설을 수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적극적인 대만화문 주장자였던 郭秋生은 1920년대 말부터 <死麼?>(1929), <鬼>(1930), <跳加冠>(1931) 등 소설을 발표했는데 중국백화문을 위주로 하되 대화에 대만식 표현과 어휘를 대량 첨가하였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南音》과 일간 《臺灣新民報》에 발표한 산문에서는 대만화문을 위주로 썼지만 논쟁이 끝난 후에 나온 소설 <王都鄉>(1935)은 다시 매우 유창한 중국백화문으로 씌어졌고 대만화문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데 이는 대만화문을 실제창작에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대변해 준다고 할 것이다.

다름으로 중국백화문 주장자들의 창작을 보면 朱點人的 경우 논쟁이 시작된 이후 나온 주요작품 <島都>(1932), <紀念樹>(1934), <蟬>(1935), <安息之日>(1935), <秋信>(1936), <長壽會>(1936) 등에서 중국작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유려한 중국백화문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1936년에 나온 <脫穎>에서는 서술과 인물의 대화에서 대만어 표현이 대량 등장하는데 논쟁 당시 대만어가 통일된다면 사용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주장의 실천일 수도 있다. 朱點人뿐 아니라 趙樞馬 역시 대량의 대만화문을 운용한 소설을 발표했는데 수리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개를 하지 못하는 농민과 일본 경찰과의 충돌을 그리고 있는 <西北雨>(1936)에서 대만화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농민들의 대화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논쟁에 직접 참여한 문인

들의 작품뿐 아니라 일제시기 소설의 언어상태를 살펴보면 1930년대 절대다수의 소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백화문을 근간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되 인물의 대화나 특정표현에서 대만화문을 운용하는, '서술은 백화문, 대화는 대만화문'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두 진영이 모두 백화문이든 대만화문이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를 지향했으며 바로 그런 인식의 문학적 실천이라 하겠다. 화문론자인 黃石輝, 黃純靑, 莊垂勝, 賴和, 李獻璋 등이 모두 기존의 글자를 채용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중국백화문 주장자들도 대만방언의 채택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 창작은 백화문의 기본구조에 대만화문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논쟁의 계기가 되었던 문예대중화의 시각에서 볼 때도 지식인이 창작의 주체인 현황을 고려하면 그들이 무산대중의 현실을 드러내는 내용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물과 상황에 맞는 대만화문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4. 논쟁의 의의와 대만근대문학의 역사조건

1930년대 향토문학/대만화문논쟁은 대만 좌익문단의 문예대중화 논의에서 발단되었으나 논쟁이 진행되면서 다른 진영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근대문학의 내용과 문학 언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중요한 문학사적 사건이었다. 이 절에서는 논쟁의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 1930년대 대만문학이 처해 있었던 역사적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쟁점이 된 근대문학의 언어문제이다.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 대만은 청조에 의해 일본 식민지로 할양되면서 곧 바로 총독전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다. 일본은 강력한 동화정책을 추진했는데 근대식 학교를 통해 일본어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일부 서당에서 문언문의 한문교육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근대사회로의 신속한 변화와 식민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신

식교육과 일어보급은 대만사회와 교육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근대문학이 형성되기 시작한 1920년대 대만사회의 언어상황은 언문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문학의 주요 창작과 향유층은 구지식인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문언문의 전통한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대만 도내와 일본 유학생 등 근대식 교육을 통해 성장한 근대지식인들은 문화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언어의 현대화 개조를 추진했다. 1920년대 초기의 문자개혁 주장과 중국신문학운동의 소개 문장에는 문학에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뿐 아니라 고문을 알기 쉬운 日用文으로 개조하자는 요구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들은 중국의 신문학운동을 참고로 하여 백화문으로 개조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1920년대 신구문학논쟁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문언문을 사용하는 구문학 진영이 완강하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문자개혁의 주장은 몇몇 논자의 문장을 신에서 끝났고 대만민보 계열의 근대미디어가 일본어와 백화문 혼용에서 백화문 전용을 채택함으로써 지식인층의 언어로만 채택되었다. 즉 식민지 상황에서 교육기관을 통한 전면적인 백화문 교육과 보급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광범위한 대중은 백화문의 사용에서 유리되어 문자표현이 어려운 대만어를 구어로 제한된 문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는 근대식 교육체계를 통해 백화문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중국의 상황과 다른 점이며 이런 대중들의 언어상황으로 인해 문학어 문제가 1930년대 대만화문논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좌익문단에서 대중들의 처지를 주요소재로 그들을 대상으로 문학을 창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시대적 임무로 논의되자 곧 바로 대중의 언어, 그들이 쓰고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대부분이 문맹인 그들에게 어떤 언어로 된 문학을 보급해야 할 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처지를 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즉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언어의 현대화 과정이 미완성으로 남은 것이 논쟁의 불씨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 대만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단계의 문제이다. 서구와의 접촉으로 뒤늦게 근대로 진입한 모든 지역의 문학이 그렇듯 1920년대 근대문학의 시작



은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었고 문학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문학이 근대문명을 포함한 보편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민족처지를 사각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의 대상인 대중은 문학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들은 지식인층이 문학을 통해 누적한 지식과 가치관을 문학이 아닌 강연, 영화, 연극 등 다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되었다. 따라서 1930년대 대만화문논쟁에서 언어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대중과 문학의 접점이 이루어진 단계로까지 대만근대문학이 진전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1930년대 들어 문학본위시대의 도래와 도시의 소비 대중층이 형성되자 대중은 문학의 독자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과 가치관을 반영한 문학창작이 요구되었고 그들의 언어가 작품 속으로 대량 진입하게 되었다. 계몽시기 신문잡지 등 공공미디어를 통해 지식인층에서 창작되고 유통되던 문학이 이 시기에 와서 단행본이 출간되고 대중들에게 읽히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언어를 채용한 창작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익 자산계급과 구지식인들이 식민의 진전에 따른 민족전통의 유실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미디어<sup>71)</sup>를 통해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민중들의 언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했다. 대만화문을 둘러싼 논쟁에 여러 진영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열렬한 토론을 펼친 것은 이러한 근대문학에서의 독자층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로 사회주의 사조의 유입과 좌익문단의 성립, 발전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예대중화 개념의 이입은 무산대중을 문학의 주체 혹은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일으켰으며 논쟁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무산대중을 문예의 보급대상으로 보든 창작의 주체로 상정하든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그들의 문맹상태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근접한 언어를 채용하는 것이 식자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란 인식을

71) 예를 들어 《三六九小報》, 《風月報》 계열 잡지(《風月》, 《風月報》, 《南方》), 《雅言》 등이다.

하게 되었고 좌익본토주의 문인들에 의해 대만화문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반면 좌익국제주의 입장을 견지한 이들은 중국대륙의 광대한 무산계급과의 단결과 소통을 전제로 중국백화문을 채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코민테른의 단계별 테제의 수용과 관련되는데 비교적 젊고 급진적<sup>72)</sup>이며 도시거점 문인들<sup>73)</sup>이 국제주의를 수용한 반면 자생적 농민운동을 통해 형성된 문인들<sup>74)</sup>은 대만 도내 무산대중의 처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활을 드러내는 대만화문의 향토문학을 지향한 것이다.

네 번째로 논쟁의 전개양상에서 보듯이 대만지역의 복잡한 언어상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대만지역의 거주민은 선사시기부터 살아왔던 소수의 원주민과 明末부터 淸朝시기에 중국대륙에서 이주해온 대다수의 漢人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인들은 크게 복건성에서 온 閩南人과 광동성에서 온 客家人으로 나뉘고 이들이 구사하는 閩南語는 漳州와 泉州의 지역차이가 있으며 客家語 역시 원래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온 까닭에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문제는 이들 언어가 말은 있지만 통일된 표기문자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떤 언어를 대만화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부터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를 어떻게 통합하고 표준화된 표기체계를 만들지를 두고 쟁론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대만어문학을 주장하는 당대의 문인과 학자들에게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기도 하다.<sup>75)</sup> 또한 표기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한자의 채택정도,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칙 등을 두고도 각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때문에 대만화문론자들 사이에서조차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실험단계에 그쳤다.

이렇게 1930년대 대만문단의 향토문학/대만화문논쟁은 대만근대문학의 발

72) 賴明弘이 대표적이다.

73) 타이베이 萬華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廖毓文, 朱點人, 林克夫 등이다.

74) 예를 들어 남부 彰化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賴和, 莊垂勝, 周定山 등 《南音》 동인들이다.

75) 대만어문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대만독립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자를 완전히 배제한 로마자 표기를 주장하는 급진파도 다수 있다.

전과정에서 문학어의 정립, 무산대중의 현실, 민간문학 중의 민족전통 등 의제를 수면 밖으로 끌어내었으며 그 결과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중국백화문의 기본서술구조에 인물의 대화나 특징표현에서 대만화문의 사용이라는 서사방식을 정착시켰다. 아쉬운 것은 논쟁이 끝난 시점인 1930년대 중반은 날로 강화되어가는 문학검열과 일본어 창작의 강제, 일본유학생 문단의 성립과 대만유입, 일본어 교육세대의 성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미 일본어 창작이 대만문학의 주류로 등장했고 곧 이어 전쟁 시기 황민화운동으로 대만인을 주체로 하는 문학논의는 봉쇄되었다. 따라서 논쟁의 결과는 문학창작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강력한 식민통치와 제국언어의 강세에 맞서 대만민중의 언어로 그들의 생활을 그릴 것을 전제로 한 이 논쟁은 대만근대문학의 방향과 내용을 현실성, 민중성, 민족성으로 설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논쟁에서 제기된 문예대중화와 문학어의 선택문제는 대만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단의 의제였으므로 본문에서 고찰한 대만문단의 상황을 향후 동아시아 각국의 논의로 확대해 가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 < 參考文獻 >

- 一吼, <拍賣民衆>, 《南音》 1/6, 1932.4.2.  
 李獻璋, <臺灣話文討論欄-新字文字>, 《南音》 1/5, 1932.3.10.  
 克夫, <鄉土文學的檢討-讀黃石輝君的高論>, 《台灣新民報》 377, 1931.8.15.  
 克夫, <對臺灣鄉土文學的認識(三)>, 《臺灣新民報》 941, 1933.10.3.  
 吳坤煌, <論台灣的鄉土文學>, 《フォルモサ》(福爾摩莎) 2, 1933.12.  
 林克夫, <清算過去的誤謬-確立大衆化的根本問題>, 《臺灣文藝》 2/1, 1935.1.1.  
 負人, <臺灣話文雜駁(一~四)>, 《南音》 1/1-1/7, 1932.1.1.-1932.5.25.  
 郭秋生, <還在絕對的主張建設臺灣話文(一)>, 《臺灣新民報》 980, 1933.11.11.  
 郭秋生, <建設「台灣話文」提案>, 《臺灣新聞》, 1931.7.7.-1931.7.26.  
 清葉, <具有獨特性的臺灣文學之建設-我的鄉土文學觀>, 吳枚芳譯文, 《文學臺灣》 38,

2001.4, 47-51 卒。

黃石輝, <怎樣不提倡鄉土文學(一~三)>, 《伍人報》9-11, 1930.8.16.-9.1.

黃石輝, <再談鄉土文學>, 《台灣新聞》, 1931.7.24.

黃石輝, <我的幾句答辯(上/中)>, 《昭和新聞》142-3, 1931.8.15.-22.

黃石輝, <所謂「運動狂」的喊聲 給春榮克夫二先生(中)>, 《臺灣新民報》968, 1933.10.30.

黃石輝, <解剖明弘君的愚論(五)>, 《臺灣新民報》978, 1933.11.9.

黃石輝, <臺灣話文討論欄-答負人>, 《南音》1/8, 1932.6.13.

黃石輝, <所謂「運動狂」的喊聲 給春榮克夫二先生(上)>, 《臺灣新民報》967, 1933.10.29.

逸生, <對鄉土文學來說幾句>, 《臺灣新民報》935, 1930.9.27.

越峰, <對「建設臺灣鄉土文學的形式的芻議」的異議>, 《臺灣新民報》914, 1933.9.5.

毓文, <我的希望>, 《臺灣新聞》, 1932.12.17.

毓文, <給黃石輝先生-鄉土文學的吟味(一~二)>, 《昭和新聞》140-141, 1931.8.1.-8.8.

賴和, <臺灣話文的新字問題(一)-給郭秋生>, 《南音》1/3, 1932.1.10.

賴明弘, <做個鄉土人的感想>, 《臺灣新聞》1931.12.24.

賴明弘, <對鄉土文學臺灣話文絕對反對(二)>, 《臺灣新民報》956, 1933.10.18.

賴明弘, <絕對反對建設臺灣話文推翻一切邪說(二)>, 《新高新報》411, 1934.2.9.

點人, <檢討「再談鄉土文學」>, 《臺灣新聞》, 1931.8.20.

樞馬, <幾句補足(上/下)>, 《臺灣新民報》934-5, 1933.9.26.-27.

中島利郎編, 《1930年代臺灣鄉土文學論戰資料彙編》(高雄: 春暉出版社, 2003)

施懿琳, 民歌采集史上一頁補白-蕭永東在《三六九小報》的民歌仿作及其價值, 《第三屆通俗文學與雅正文學全國學術研討會論文集》(台北: 新文豐, 2002); 王美惠, 《1930年代台灣新文學作家的民間文學理念與實踐-以〈台灣民間文學集〉為考察對象》(國立成功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 2008.1)

陳淑容, 《1930年代鄉土文學·臺灣話文論爭及其餘波》(國立臺南師範學院鄉土文化研究所碩士論文, 2001.6)

崔末順, 《現代性與臺灣文學的發展(1920-1949)》(國立政治大學中文系博士論文, 2004.1)

崔末順, <日據時期台韓左翼文學運動及其文學論之比較>, 《跨國的殖民記憶與戰後經驗-台灣文學的比較文學研究》(陳建忠主編, 國立清華大學台文所, 2011.05)

崔末順, <殖民地自治論與葉榮鐘的朝鮮行>, 「第17屆中國韓國國際學術研討會」(山東大學韓國學院主辦, 2016.10.13.-16)

游勝冠, 《臺灣文學本土論的興起》(臺北: 前衛出版社, 1996)

趙勳達, 《文藝大眾化的三線糾葛-1930年代臺灣左右翼知識份子與新傳統主義者的文化思維

及其角力》(國立成功大學臺灣文學研究所博士論文, 2009.6)

< Abstract >

The Focus and the Achievements of the Local Literature / Debate of the Spoken  
and Written Taiwanese in the 1930s Taiwan Literature Circle

Choi, Mal-soon

The local literature / debate of the spoken and written Taiwanese that took place in the 1930s Taiwan literary circle originated from the debates of the ways and manner of the literary popularization in the left-wing literary circle. There were two concentrated debates between 1930 to 1934, emphasizing: first, the definition of local literature, and the question of performance in practical writing: Second, the choice of the literary language between the mandarin Chinese and the Taiwanese vernaculars. Third, opinions about proposing the construction of the Taiwanese vernaculars. Although the debate is originated from the viewpoint of left-wing literary circle, it was environmentally confined by many conditions and restrictions in Taiwan's early literary colonial era. Therefore, it was not limited by the left-wing literary circle, but the intellectuals in other camps also heavily participated, and commonly thinking about the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of the colonial literature during the period of establishing modern literature. This article will first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causes, paths, processes, focuses and the thought behind the participants of the local literature / debate of the spoken and written Taiwanese, and then arrange the significance and achievements of the debate in the colonial Taiwan literary circle,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1930s historical conditions of the Taiwan Literature in Colonial Period.

Key words: Taiwanese Literature, Literary Popularization, Taiwan Literary Circle in the 1930s, Debate of the Spoken and Written Taiwanese, Japanese Colonial Period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1. 14.	2017. 11. 28.	2017. 11. 30.	2017. 12. 15.	2017. 12. 31.